

“영어는 ‘세상을 보는 창’… 발표·토론 능력, 더 중요해질 것”

수험·실용 다 잡는 영어 학습법

고입과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내신 관리에 주력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특히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 영어 영역이 절대 평가로 전환되면서 ‘이 과목이야말로 내신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하다’는 말도 나온다. 내신 성적을 좌우하는 것이 문법 실력이라며 이에 철저하게 대비하게 해준다는 영어 학원도 생형하고 있다. 심슨어학원의 심호길 대표의 생각은 다르다. 심 대표는 “지금 내신을 위해 문법 등 지필 평가 위주로만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다면, 흐름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라고 말한다.

◇수험 평가 비중 50% 넘을 것… 토론·쓰기 대비해야

영어 내신 성적은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 점수를 합쳐 산출된다. 현재 많은 학교가 지필 평가 비중을 수행 평가 비중보다 크게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학교는 각 교과목의 수행 평가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 고등학교의 일부 교과목도 이에 해당된다.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겠다는 의도다. 심호길 대표는 “향후 수행 평가 비중이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수행 평가에서 주로 활용되는 평가 요소는 발표

·토론·글쓰기·듣기 등이다. 앞으로 영어로 말 한마디 못 한 채 문법만 공부해선 수행 평가, 더 나아가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변화는 ‘영어는 수험을 넘어 세상을 보는 창이 돼야 한다’는 심 대표의 교육 방침과도 상통한다. 그는 지난 2004년 말하기·글쓰기·문법까지 아우르는 커리큘럼으로 서울 광진구에서 심슨어학원을 열었다. 심 대표는 1997년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UN) 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같은 해 미국 뉴욕에 있는 UN 본부에서 인턴으로 일한 경험에 있다. 그 과정에서 익힌 다채로운 실무 경험을 공부법에 반영했다. 현재 심슨어학원은 7개 캠퍼스와 심슨출판, 심슨진학연구소 등 다방면의 사업을 망라하는 교육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1일엔 위례 캠퍼스를 개원했다.

◇뉴스로 공부하니 해외 안 가본 학생도 원어민처럼 말하더라

심 대표에 따르면 수행 평가가 요구하는 다양한 학습 능력은 뉴스와 토론(News&Debate)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심슨어학원 학생들은 심 대표가 엄선한 각 분야의 최신 뉴스와 유명인의 주요 연설문을 교재 삼아 공부한다. 최근엔 미국 대선 전당 대회·브렉시트(Brexit) 등의 뉴스와 스티브 잡스의 미 스탠퍼드대 연설문을 다뤘다. 재원생들은 주어진 텍스트를 세심하게 분석한 뒤 통째로 암기하면서 완벽하게 체득(體得)한다. 해당



심슨어학원의 심호길 대표는 1997년 UN본부에서 인턴십을 했다. 당시 한국 외교관들이 문서 작성에 능하지만 말하기 능력이 너무 뒤처지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토론과 뉴스로 영어를 학습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주제로 찬반 토론을 하고, 에세이도 써본다. 뉴스를 암기하고 나면 카메라 앞에서 암송하는 영상을 찍는 등 앵커가 돼 보는 경험을 한다. 연단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발표력과 자신감도 키운다. 초등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저마다 관심사와 꿈을 찾거나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비행기 한 번 안 타본 학생이 원어

민 수준의 발음과 억양을 구사하게 된 경우도 흔하다.

활동 내역은 모두 학원 내 온·오프라인 포트폴리오로 관리되고, 특목·자사고나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풍부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자신의 관심 영역에 대한 영어 기사를 꾸준히 찾아 읽거나 톨모델의 연설문을 모두 외우는 건 특별한 경험입니다. 다른 지원자들

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지난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활용했던 심슨어학원 광진·송파 캠퍼스 재원생 중 25명이 대원외고·하나고를 비롯한 특목·자사고에 지원했고 그중 24명이 합격증을 받았다.

◇수능 만점자도 배출한 심슨어학원

물론 완벽한 내신 관리를 위해선 지필 평가도 놓쳐선 안 된다. 심슨어학원은 학교별로 분반을 할 뿐 아니라, 한 학교에서도 성적별로 분반해 체계적으로 내신을 준비한다. 학교별 담당 강사가 교과서, 부교재, 개별 프린트는 물론이고 기출 문제 경향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성적 관리를 돕는다. 시험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해 다음 시험에 대비하는 자료가 된다. 심 대표는 “학원 인근 학교의 상위권 학생이 대부분 심슨어학원에 다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정받은 시스템”이라고 했다. “한 중학교에서는 1등급의 30% 이상이 우리 학원에 다닙니다. 고교 중에는 1등급의 절반이 재원생인 경우도 있고요.” 2016학년도 수능 만점자 중 한 명도 수능 직전까지 이곳에 다녔다.

수능 준비도 꾸준히 한다. 특히 중학교 1학년부터 매주 수능 모의고사를 치러서 수능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 이때 심슨어학원이 그간 구축해온 문제은행에서 학년별 수준에 맞는 문제를 제공한다. 모의 수능 결과는 개인적으로 취약한 유형과 단원, 전체 오답률이 높은 문항까지 전부 데이터화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자료로 쓴다.

김세영 조선에듀 기자

제5회 골드버그대회를 가다

‘성화에 불을 밝혀라’ 주제… 공학 장치 설계하고 디자인



골드버그대회 수상자들(왼쪽). 고등부 최우수상 수상팀인 99%팀이 골드버그 장치를 만들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제공

“다양한 재료를 준비해 활용한 점이 대상을 탈 수 있었던 요인인 것 같아요. 도르레, 압력의 차이, 부력 등 다양한 과학 원리를 활용해서 친구들과 골드버그 장치를 만들었는데 공부하거나 실험할 때 협동심이 중요하다는 점도 느꼈죠.” (박지원·진주제일여고 2)

지난 27일 ‘제5회 골드버그대회’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렸다. 과천과학관이 주최한 이 대회는 초·중·고교생이 팀을 이뤄 골드버그 장치를 만드는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골드버그 장치는 간단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공학적인 결과물을 뜻한다. 올해 과제는 ‘(제한시간 5시간 안에) 성화에 불을 밝혀라’였다.

골드버그대회는 청소년들의 과학적이고 기발한 상상력을 관찰할 수 있는 자리다. 장치를 만드는 과정에 과학 원리부터 공학 설계 능력, 수치를 제어하는 수학 개념, 장치를 꾸미는 예술 감각 등 다방면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등부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지연(진주제일여고 2)양은 “이전까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과학적인 내용을 골드버그 장치를 통해 접하고 활용하니 흥미롭고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고 했다.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는 스팀(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융합교육에도 적합하다. 이명재 상지대 환경공학과 겸임교수는 “이 같은 교육적 효과 때문에 여러 학교에서 골드버그 장치 만드는 동아리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여러 명이 짝을 이뤄 만드는 활동이기 때문에 협동심과 토론능력, 문제해결력을 갈라주기도 한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우주비행사들의 위기 대처 훈련에 골드버그 장치를 응용하기도 한다.

골드버그 장치를 만들려면 휴지심, 일회용 수저, 종이박스 등 주변의 재활용품을 이용하면 된다. 특별한 교구나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다. 집에서 시소와 빗면 등 몇 가지 과학 원리만 활용하면 가족 모두가 참여해 쉽게 만들어볼 수 있다.

대회에 대한 청소년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전체 169팀이 지원했고 예선을 통과한 30팀 120명이 이날 본선에 참가했다. 심사는 ▲창의성 ▲완성도 ▲표

현력 ▲협동심 등 4가지 평가기준에 맞춰 이뤄졌다. 이번 대회에는 특히 작품의 완성도나 창의성이 뛰어난 산출물이 예년보다 많았다. 심사위원들에 따르면 성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잘 구성했고 과학기술의 원리를 각 요소에 적용해 재미있고 새로운 장치를 만들었다. 조성찬 국립과천과학관장은 “골드버그대회는 과학적이고 기발한 상상력뿐만 아니라 정교한 설계, 제작 기술이 필요한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이라며 “내년에는 예산 참여기회 확대, 가족골드버그대회 개최 등 범국민적 차원의 골드버그 축제로 대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기석 조선에듀 기자

최우수상 수상자 명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구분	팀	구성원
초등부	숲사랑	김서현·김승민·박지연·장원석(수원 천천초 5)
중등부	무한창의력	김한솔(충북 영신중 3), 김휘원(충북 영신중 2), 류승훈·박승준(충북 영동중 1)
고등부	99%	박지원·이현민·이지연(진주제일여고 2), 최다솔(진주제일여고 1)

맛있는 교육정보

진학크리에이션, 자소서·면접 컨설팅

다양한 진학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선에듀 진학크리에이션센터가 ‘말하는 논술’ 컨설팅과 고입·대입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컨설팅을 시작한다. ‘말하는 논술’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풀어낸 다음, 자신감 있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전·현직 아나운서가 개별 지도해 표현 능력을 키워준다. 정확한 전달력을 위해 발성·발음 훈련은 물론 말할 때의 시선,

제스처까지 지도한다.

전공 관련 시사이슈 면접에 대비해 새로운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논술문을 작성하고 자신의 생각을 요약·발표하는 연습을 하며, 이를 녹화해 발성·발음·시선·제스처 등을 모니터링한다. 컨설턴트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 컨설팅도 이루어진다.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컨설팅은 특목·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 3, 대입 면접을 준비하는 고 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진학크리에이션센

터의 크리에이션컨설팅 내용에 기반해 ‘나만의 강점 살리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1대1 맞춤형으로 지도해 준다.

자기소개서작성 후 그 내용의 진위를 증명하는 서류 확인 면접, 전공 이해도를 확인하는 전공 적합 면접 대비는 물론 돌발질문이나 압박질문에 대한 대처 능력까지 키우는 집중 컨설팅이 진행된다.

- 대상: 초 5~고 3
- 장소: 조선에듀 진학크리에이션센터(서울시 강남구 대치동·한티역 인근)
- 신청·문의: (02)565-5690

알립니다

수능 파이널 모의고사 세트
집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 시험 후 상담서비스도 제공

조선에듀케이션과 대성학력개발연구소는 2017학년도 수능 단기 완성을 위한 ‘대성 IC(Intensive Clinic) 파이널’을 출시했다. 9월까지 신청하면 할인가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성 IC 파이널은 국어·수학·영어 집중 학습 프로그램이다. ▲국어·수학·영어 미니 모의고사 18회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3회 ▲입시자료집 전자책(E-book) ▲온라인 수시·정시 상담 서비스 ▲카카오톡 실시간 질문 상담 서비스 ▲수능 정시 배치표 등은 오프라인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한다. 오답노트, 핵심 정리 요약집, 논술 가이드북, 클리어파일 등 유용한 자료도 준다.

대성 IC 파이널은 강남 대성학원을 비롯한 전국 대성학원 재원생이 이용한다. 대성학력개발연구소가 수험생의 국영수 개별 학업 성취도를 매주 평가하고 분석해준다. 수험생이 약점을 정리해 단기간에 수능 성적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대성학원 및 전국의 수험생과 비교할 수 있는 분석자료도 제공한다.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10% 할인된 13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대상: 고교생 및 수능을 앞둔 수험생

●문의·신청: (02)812-8001~3
edu.chosun.com/icfinal

가고 싶은 대학 이제 다 있다 진학사

9월 8일(목) 수시접수가 시작됩니다!

201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일정	
4년제 수시모집	9월 12일(월)~9월 21일(수) 중 3일 이상
전문대학 수시 1차	9월 8일(목)~9월 29일(목)
전문대학 수시 2차	11월 9일(수)~11월 21일(월)

원서접수는 역시! 진학사 원서접수

- 2016학년도 인턴십 원서접수 개
- 2006~2016년 교육브랜드 대상 12회 연속 수상
- 2012~2016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기업 인증원 원서접수 사이트

JINHAK 원서접수

www.jinhakapply.com